



[코로나19 경제충격] PF상품 부실로 P2P 금융도 패닉 03



Economy

코스피	1771.44 (0.00)	코스닥	524.00 (0.00)
금리 (미국 3년)	1.15 (+0.09)	환율 (원/달러)	1219.30 (+12.80)(13일)

# 빛내 투자한 개미들 '강통계좌' 속출우려

출렁이는 증시에 과도한 베팅 신용용자 잔고 10조원 '최고치' 돈 빌려 산 주식 급락면 반대매매 밀린 돈 갚지 못하면 손실 눈덩이

글로벌 증시가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의 투자 방식이 손실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미들은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두 배 이상 수익을 내는 상품을 과감히 매수했고, 신용용자까지 끌어들이면서 과도한 베팅에 나섰다.

◆ ETF 거래 82.9%...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주로 지수에 따라 수익을 내기 때문에 종목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개미들은 지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레버리지 ETF를 통해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쫓는데 활용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13.2% 하락한 지난 한 주간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KODEX 레버리지 ETF로 나타났다. 무려 1조48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연동 지수의 수익률에 2배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상승했다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약 20% 수익을 낸다. 반면 10%만 하락해도 20%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 ETF는 잘못 투자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개미들의 투자자금도 몰렸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ETF 거래금의 82.9%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ETF의 몸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KODEX 레버리지는 74위,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는 147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개미의 투자 방향이 실제 지

수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일주일 동안 KODEX 레버리지에 투자한 개미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23.4%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는 13.2% 하락했지만 손실은 두 배다. 해당기간 외국인인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 투자해 하락장 속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미들이 지수를 두 배 이상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국내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신용용자 10조...반대매매 11년만 최대

증시 하락장에도 개미들의 신용용자 잔고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용자란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연 평균 7~9%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금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신용용자 잔고는 10조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보다 8.9% 늘었고, 지난 2014년 연간 평균인 5조770억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불과 5년 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금이 두 배 늘어난 것이다.

신용용자 투자가 인기를 끌자 증권사들은 이자율을 낮추는 이벤트 등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일정 기간 신용용자 이자율을 2% 수준에서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또 증권사는 차액결제계약(CFD)을 통해 고객의 통 큰 베팅을 부추겼다. CFD는 전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한 파생상품이지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도록 만든 고위험 상품이다. 작년까지 국내에서는 3곳의 증권사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그 두 배인 6곳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시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13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일부 조명이 꺼졌다. 1층 대합실에도 인기척이 없다.



/김수지 기자

## 텅빈 체크인 카운터... 곳곳엔 조명도 꺼놨다

르포 | 코로나19 사태... 김포국제공항 가보니

직원 대부분 유급·무급 휴직 입점업체 손님없어 고사위기

임대로 인하는 중소기업 해당 공항 입점업체 대부분 안돼

"비행기가 없으니 승객도 없어 환전하러 오시는 손님이 없다. 이번주 초부터 계속 그랬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손님이 절반 수준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제로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외화가 필요해 미리 신청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 아예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오픈시간은 3시간 반 늦춰졌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환전소 직원의 말이다. 이날 나란히 붙어있던 두 환전소 중 하나는 이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손님이 없자 아예 문을 닫은 것이다.

지난 13일 찾은 김포국제공항 내 국제선 청사는 아직 낮인데도 일부 조명을 꺼놨다. 전일부터 국제선에 한 대도 취항하지 않자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상주 직원 등 일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불을 밝힌 입점업체들과는 대조적이었다. 공항 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방송만이 공허히 울려 퍼졌다. 이날 국제선의 출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김포공항 내 국제선은 단 한 대도 항공기가 뜨지 않았다. 김포국제공항이 문을 연 지 51년 만이다.

13일 기준으로 오직 국내선만 87편 운항했다. 이날 찾은 국내선 청사는 실제 국제선과 달리 비교적 많은 사람들

로 붐볐다. 하지만 첫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나온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선이 156편이었던 사실과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다.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공사와 공항 내 입점업체 등이다. 이미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서비스 센터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김포공항에서 운항되는 국제선이 없으니 상주 직원도 모두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적 항공사들은 비운항 조치가 늘며 현재 임직원들이 유급 혹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 지난해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했던 대한항공마저 최근 두 번째 단계 휴직 및 무급 휴가를 신청 받았다.

공항에 입주한 한 카페 직원은 "여기는 국제선이라 상주 직원인 손님이 많았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첫 사례

피해 복구자금 국비 50% 지원 국세·전기요금 등 감면·유예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장, 세입자 보조 등 지원도 받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재난과 관련한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